

남자대학생의 데이팅 폭력과 세대간 전이

이 명 숙¹⁾

이 미 선²⁾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본 연구는 성장기에 경험한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남자대학생의 데이팅 폭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 연구 하였다. 서울시,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 위치한 7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SPSSWIN을 이용하여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부모간 폭력 목격,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및 데이팅 폭력 경험의 정도는 낮았다. 그러나 경미한 수준의 부모간 폭력 목격 및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과 심리적 데이팅 폭력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심한 수준의 부모간 폭력 목격과 심한 수준의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남자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의미 있는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주요어 : 데이팅 폭력, 가족폭력, 부모간 폭력, 부모로부터의 폭력, 세대간 전이

1) 교신저자: 이명숙,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 E-mail: dara@hnu.hankyong.ac.kr

2)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겸임교수

I. 서 론

성폭력방지법('97 개정),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97 제정) 등은 성과 가정의 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해결 차원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최근에 활성화된 법률들이다. 이와 함께 성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소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실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데이팅 폭력 상담이란 새로운 영역의 온라인 전문상담실이 구축돼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데이팅 폭력 상담소 측은(연합뉴스, 2001)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의 42.5%, 여자 대학생의 31.2%가 한 번이라도 데이트 중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남자 대학생의 5.6%가 폭력을 사용해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정구철, 2000)'며 '데이팅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연결되고 다시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성을 사귀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사이클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팅 폭력에 대한 진지한 상담요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상담실을 마련, 운영하게 됐다'고 하였다.

미국의 조사에서도(한겨레, 2002) 여고생 5명 가운데 1명꼴로 자신들이 데이트 상대에 의해 육체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폭력적인 경험이 그들의 약물 남용, 자살 및 기타 유해 행위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놀라운 통계치는 데이팅 폭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하였다. 비록 이성교제가 건전한 사회화의 한 형태로 고려되지만, 빈번히 이성교제 파트너들 사이에 폭력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미국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성교제 시 폭력 사례들이 미디어를 통

해 강조되었다(Englander, 1997).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팅 폭력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연구결과(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99.1%가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각 하위영역에서 경미한 수준의 심리적 폭력경험이 97.9%로 가장 많았고, 52.4%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14.6%가 성적 폭력행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혜정(2003)은 데이팅 폭력 실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약 21~40%의 대학생들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또 심리적 공격의 경우 그 빈도가 훨씬 높아서 약 36~70%의 심리적 공격이 데이팅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데이팅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데이팅 관계가 낭만적 사랑과 친밀감 형성의 관계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데이팅 관계에서도 상당한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이 발생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데이팅 관계에서의 폭력은 장기적으로 결혼 후 부부폭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

데이팅 폭력이 폭력의 세대간 전달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력 연구-부모간의 폭력 목격,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는 사회학습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견이 분분한 예측변인이다. 데이팅 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서로 상충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연애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결과를 얻었는가 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어떤 연관성도 찾지 못했다(정구철, 2000). 즉, 가족폭력의 세대간 전달은 일반적인 가설로서 전적으로 지지되고 있지는 않다. 가족폭력의 세대간 전달이론에

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네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부모간 폭력 목격과 아동기 학대 경험 중 어느 것이 이후의 폭력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폭력의 가해자가 될 위험이 큰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위험이 큰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폭력의 세대간 전달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작동하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폭력부모의 성이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으로 요약된다(김예정, 2001). 실제로 1990년대 가족폭력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고찰에서 Johnson과 Ferraro(2000)는 원가족에서의 폭력이 배우자 폭력 발생의 위험 인자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고찰된 연구들의 결과는 이들의 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다른 영역의 사회화 연구에서처럼 '세대 전이'의 폭넓은 사용은 원가족의 실체가 아동의 성인 삶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막대한 왜곡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Gelles(1987)는 아동 학대와 부인 학대에 관한 연구들이 어린 시절 가족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성인이 되어 아동 및 배우자 폭력에 관련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동은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폭력을 발산하기 위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설명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즉, 가족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거나, 가족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 아동일수록 그들의 부모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최근의 한 연구(Heyman & Slep, 2002)에서 아동의 신체적 가족폭력 경험과 부모간 폭력의 목격이 어른이 되어서 아동학대 가해, 배우자학대 가해 및 배우자 폭력 피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구분하여 검증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연구한 결과, 원가족 폭력이 성인기 가족폭력

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일반적인 폭력의 사이클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처벌이 표적으로 하여금 보다 더 공격적이게끔 만드는 경향성은 그것이 모델링 때문에 일어나건 아니면 분노의 증가 때문에 일어나건간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즉, 자기의 부모가 서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본 바 있는 기혼 남성들 중에서 35%가 지난 1년간 자기 부인을 때렸고, 자기 부모간에 그러한 폭력을 전혀 보지 않았었던 기혼 남성들 중에서 11%만이 자기 부인을 때렸다. 이와 동일한 것이 부인들에 대해서도 나타났는데 각각 27%와 9%가 자기 남편을 때렸다(Straus 등, 1981, 홍대식 역, 1991, 재인용)고 했다. 어렸을 적에 신체적으로 처벌을 받았던 남자와 여자들 자신은 어른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에게 훨씬 더 폭력적으로 되기 쉬웠다. 즉, 폭력적 부모들은 자기 자신의 폭력적 경향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이와 반대로, 비폭력적 부모들은 자기 자신의 보다 더 평화스런 경향성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내 구타자들이 원가족 내에서 부모사이의 폭력을 목격하였던 성장기를 보낸 비율을 보면, 부의 모 폭력 목격이 45%에 이르고 부부간 상호폭력 목격이 8%, 모의 부 폭력 목격이 8%로 61%의 아내 구타자들이 원가족의 폭력상황을 목격하면서 자랐음을 알 수 있었다(최선령, 2001). 부모간의 폭력은 남녀 모두에 있어 데이팅 폭력 행사의 예측 기대변인이 되었으나, 남자의 경우는 모의 부 폭행이, 여자의 경우는 부의 모 폭행이 데이팅 폭력 행사의 예측 기대변인이 되었다(정구철, 2000).

더불어서 폭력가정 내에서는 자녀학대와 아내학대가 중복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가족폭력 노출유형을 중심으로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 결과 자녀학대와 아내학대를 모두 경험

한 집단이 전체의 52.4%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다. 즉, 두 가지 유형에 노출된 집단 > 한 가지 유형에 노출된 집단 > 노출경험이 없는 집단 순으로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란, 2003). 실제로 가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아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 중 82.3%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녀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조사대상자 중 56.8%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학대를 가하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폭력에 노출된 경험은 외상적 경험으로서 아동학대의 심리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외상적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족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신체적,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공포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신영화, 2003). 쉼터 이용 여성의 연구에서 그들 자녀인 아동 전원의 가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아내구타가 발생하였으며, 90%에 달하는 아동이 이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나서 아내구타 노출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 대상아동 18명 중 총 문제 행동척도에서 임상군에 속한 경우가 5명이었는데 이는 일반아동의 2.8배에 달하여 조사대상 아내구타 노출아동의 문제행동 정도는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였다(양혜원, 2002).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폭력의 빈도와 정도 및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가족폭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1998)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13만 가구에서 가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한 가정 내에서 중복하여 발생하는 폭력을 감안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가족관계에 의한

폭력유형을 보면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약 72만 8천 가구에서,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약 14만 3천 가구에서, ‘형제, 자매간, 친인척간 등’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은 약 13만 가구에서 그리고 ‘아동학대 및 폭력’은 약 33만 8천 가구에서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약 20만 9천 가구에서는 부부, 자녀 등의 가족원에 대한 폭력이 중복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노인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감안한다면 가족폭력의 규모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폭력의 원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것인지 학습이나 기타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명하게 가족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트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특히 대학생들의 남녀교제가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종종 보고되고 있으므로 가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결혼 후의 가족폭력 뿐 아니라 결혼 전 이성교제 단계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부모간 폭력 목적,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데이트 폭력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부부간 폭력이 자녀학대로 이어지는지, 성장기 부모간 폭력 목적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남자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족력 중 어떤 변인의 영향력이 더 큰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 가족폭력의 가해자가 주로 남자이므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 역시 주로 남자일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많은

연구에서 성장 시 부모 폭력에의 노출이 이성교제 관계에서 폭력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특히 남성들이 부모 폭력 노출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김정란, 1999)에 기초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대학생이 성장기에 목격한 부모간 폭력과 성장기에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폭력, 데이팅 폭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남자 대학생의 데이팅 폭력에 대한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중소도시 소재 7개 대학교 남자대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고, 이러한 특성은 단지 표집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알기 위해 제시하였을 뿐 연구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측정도구

가족폭력(성장기 폭력경험)

성장기(양육기)의 폭력경험이 성장 후 폭력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폭력 경험과 부모간의 폭력 목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부모간의 폭력 목격: 성장기 동안 부모님이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학년	1학년	94(25.0)
	2학년	98(26.1)
	3학년	139(37.0)
	4학년	45(12.0)
	계	376(100)
형제순위	만아들	165(44.7)
	차남이하	135(36.6)
	외아들	69(18.7)
	계	369(100)
군복무 경험	있다	197(54.0)
	없다	168(46.0)
	계	365(100)
아버지의 연령	50세미만	91(24.2)
	50세이상 - 55세미만	134(35.6)
	55세이상	151(40.2)
	계	376(100)
어머니의 연령	50세미만	198(52.7)
	50세이상 - 55세미만	103(27.4)
	55세이상	75(19.9)
	계	376(100)
아버지의 직업	무직	50(14.3)
	숙련·반숙련 노무직	102(29.1)
	자영업	85(24.3)
	사무직	71(20.3)
	전문직	42(12.0)
	계	350(100)
어머니의 직업	없다	205(54.5)
	있다	142(37.8)
	계	347(100)
아버지의 학력	국졸이하	31(8.5)
	중 중퇴 및 졸	51(14.0)
	고 중퇴 및 졸	165(45.5)
	대 중퇴 및 졸이상	116(32.0)
	계	363(100)
어머니의 학력	국졸이하	47(12.8)
	중 중퇴 및 졸	94(25.7)
	고 중퇴 및 졸	175(47.9)
	대 중퇴 및 졸 이상	50(13.7)
	계	366(100)

표 2. '부모간 폭력 목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중간 수준	요인2 심한 수준	요인3 경미한 수준	Com.
4. 잘못했을 때 욕(또는 기분 나쁜 말)을 하셨다.	.65			.62
5. 어느 한 분이 방밖으로 또는 집밖으로 쫓아내셨다.	.74			.65
6.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며 싸우셨다.	.78			.71
7. 밀거나 움켜잡거나 세게 밀어젖히며 싸우셨다.	.84			.83
8. 손으로 때리며 싸우셨다.	.86			.85
9. 어떤 도구(자, 회초리, 허리띠, 총채, 빗자루...)로 때리며 싸우셨다.	.73			.74
10.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깨무셨다.	.75			.79
11. 때려서 상처나 멍이 들게 한 적이 있다.	.75			.80
12. 마구(사정없이) 때리셨다.	.70			.81
13. 목을 조르셨다.		.83		.85
14. 담뱃불이나 뜨거운 물건으로 지저서 화상을 입힌 적이 있다		.93		.90
15. 때려서 생긴 상처나 이가 흔들려, 치료(약, 병원)를 받은 적이 있다		.83		.85
16. 몸을 묶어놓거나 방에 가두셨다		.94		.92
17. 흉기(송곳, 칼, 낫, 도끼)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했다.		.83		.80
1. 말로 싸우셨다.			.80	.67
2. 속상할 때나 화가 났을 때 서로 찰찔하게 대했다.			.86	.85
3. 화(또는 뽀루통)를 내거나 상대를 안하셨습니다.			.84	.78
Eigen Value	9.68	2.40	1.33	78.79
Pct. of Var	56.92	14.08	7.79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언쟁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에 대한 목적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Miller(1993)가 제작한 갈등해결척도(CTS 16문항)에 언어적 폭력을 대표할 수 있는 1문항을 추가한 정준미(1998)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준미의 연구에서는 총 17문항의 부모간 폭력 목적 척도가 정서적 싸움(4문항), 중한 신체적 싸움(8문항), 매우 중한 신체적 싸움(5문

항) 등의 3개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경미한 수준(Cronbach's $\alpha = .85$), 중간 수준(Cronbach's $\alpha = .95$), 심한 수준(Cronbach's $\alpha = .96$)의 3개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처벌받은 경험): 양

육상상황에서의 아동기에 처벌받은 경험을 조사하기 위하여 Miller(1993)가 제작한 갈등해결척도(16 문항)를 번안하고, 언어적 학대를 대표할 수 있는 1문항을 추가한 정준미(1998)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7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한 정준미의 연구 결과, 경한 체벌(6문항), 중한 체벌(6문항), 매우 중한 체벌(5문항)의 3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한 결과 1번 문항을

제외하고, 16문항이 경미한 수준(Cronbach's $\alpha = .78$), 중간 수준(Cronbach's $\alpha = .82$), 심한 수준(Cronbach's $\alpha = .95$)의 3개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데이팅 폭력

이성교제 중 폭력의 척도는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CTS2(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를 번안하고 우리 나

표 3.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심한 수준	요인2 중간 수준	요인3 경미한 수준	Com
6. 주위에 있는 물건을 나에게 집어 던지셨다.	.53			.64
7. 밀거나 움켜잡거나 세게 밀어젖히셨다.	.49			.66
10.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깨무셨다.	.62			.69
12. 마구(사정없이) 두들겨 맞았다.	.62			.75
13. 목을 조르셨다.	.89			.87
14. 담뱃불이나 뜨거운 물건으로 지저서 화상을 입혔다.	.91			.82
15. 맞아서 생긴 상처나 이가 흔들려, 치료(약, 병원)를 받았다.	.86			.80
16. 몸을 묶어놓거나 방에 가두셨다	.90			.84
17. 흉기(송곳, 칼, 낫, 도끼)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셨다.	.94			.89
5. 방밖으로 또는 집밖으로 쫓아내셨다.		.53		.57
8. 손으로 팔, 다리, 등, 엉덩이를 때리셨다.		.75		.67
9. 도구(자, 회초리, 허리띠, 총채, 빗자루...)로 때리셨다.		.85		.73
11. 때려서 상처나 멍이 들게 한 적이 있다.		.76		.67
2. 속상할 때나 화가 났을 때 찔찔하게 대하셨다.			.84	.76
3. 잘못된 일에 대해 화를 내거나 상대를 안하셨습니다.			.84	.78
4. 잘못했을 때 욕(또는 기분 나쁜 말)을 하셨습니다.			.62	.57
Eigen Value	8.28	2.16	1.28	73.25
Pct. of Var	51.75	13.52	7.98	

라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김정란(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정란의 연구에서는 22개의 문항이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4문항을 제외한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

력, 성적 폭력 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94, .86, .92 였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표 4. '데이팅 폭력' 요인분석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Com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12.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진 적이 있다.	.67			.70
13. 상대방의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75			.66
14. 상대방을 밀친 적이 있다.	.79			.73
15. 상대방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74			.78
16. 상대방을 발로 찬 적이 있다	.80			.75
17.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린 적이 있다	.76			.78
18. 상대방을 심하게 계속해서 때린 적이 있다.	.71			.75
1.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		.80		.66
2. 짜증난 목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다		.83		.71
3. 욕을 한 적이 있다.		.70		.61
4. 고함을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낸 적이 있다		.78		.71
5. 침묵으로 저항한 적이 있다		.48		.24
6.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70		.62
7. 일부러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린 적이 있다.		.44		.39
19.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때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렬히 요구한 적이 있다			.83	.76
20. 성행동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말로 위협한 적이 있다			.80	.86
21. 성행동을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86	.86
22. 성행동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협한 적이 있다			.75	.82
Eigen Value	9.02	2.22	1.23	69.71
Pct. of Var	50.12	13.35	6.24	

연구절차

서울특별시, 광역 시 및 중소도시 소재 7개 대학교에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 수집하였고 (2001년 11월-12월), 수집된 자료 중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376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및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부모간 폭력 목적,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및 데이팅 폭력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의 부모간 폭력 목적 점수는 평균 1.55점으로 나타나 성장기에 부모간의 폭력 목적의 정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 중에서 경미한 폭력의 경우는 중간 및 심한 수준의 폭력 목적 정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 점수는 평균 1.49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성장기에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폭력 정도는 낮았다. 그러나 경미한 수준의 폭력은 가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데이팅 폭력 점수는 1.74점으로 역시 낮은 경향이지만, 위의 두 경우보다는 높았다. 특히 심리적 폭력의 경우 가끔 혹은 보

표 5.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평균	표준편차
부모간의 폭력 목적	심한수준	1.13	.50
	중간수준	1.46	.73
	경미한수준	2.52	.85
	전체	1.55	.58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심한수준	1.22	.53
	중간수준	1.69	.75
	경미한수준	2.04	.83
	전체	1.49	.53
데이팅 폭력	신체적폭력	1.47	.72
	심리적폭력	2.30	.76
	성적폭력	1.31	.68
	전체	1.74	.60

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폭력 목적,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및 데이팅 폭력간의 관계

부모간 폭력 목적,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및 데이팅 폭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모간 폭력 목적과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의 상관관계는 .62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간에 폭력적일수록 그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 역시 폭력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데이팅 폭력과 부모간의 폭력 목적의 상관관계는 .35, 데이팅 폭력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의 상관관계는 .40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간의 폭력을 많이 목격했을수록,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표 6. 변인간 상관관계

변 인		부모간 폭력 목적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데이팅 폭력			
		심한 수준	중간 수준	경미한 수준	전체	심한 수준	중간 수준	경미한 수준	전체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전체
부모간 폭력 목적	심한수준	1.00											
	중간수준	.64**	1.00										
	경미한수준	.29**	.514**	1.00									
	전체	.75**	.96**	.68**	1.00								
부모로 부터의 폭력 경험	심한수준	.65**	.54**	.25**	.58**	1.00							
	중간수준	.36**	.43**	.38**	.47**	.62**	1.00						
	경미한수준	.30**	.41**	.51**	.47**	.41**	.50**	1.00					
	전체	.58**	.57**	.42**	.62**	.90**	.90**	.70**	1.00				
데이팅 폭력	신체적폭력	.49**	.35**	.12*	.38**	.49**	.26**	.18**	.42**	1.00			
	심리적폭력	.27**	.21**	.07	.21**	.29**	.18**	.19**	.28**	.61**	1.00		
	성적폭력	.54**	.48**	.18**	.48**	.59**	.34**	.26**	.52**	.72**	.46**	1.00	
	전체	.43**	.34**	.11*	.35**	.46**	.25**	.20**	.40**	.91**	.86**	.76**	1.00

*p<.01 **p<.001

폭력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데이팅 폭력 행사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간 폭력 목적,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간 폭력 목적,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심한 수준의 부모간의 폭력 목적($\beta = .24$), 심한 수준의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beta = .28$)이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데이팅 폭력의 경우에도 심한 수준의 부모간 폭력 목적, 심한 수준의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폭력의 경우 각각 $\beta = .29$, $\beta = .31$ 로, 심리적 폭력의 경우 $\beta = .17$, $\beta = .13$ 으로, 성적폭력의 경우 $\beta = .20$, $\beta = .38$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심한 수준의 부모간 폭력 목적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신체적 데이팅 폭력의 28%, 심리적 데이팅 폭력의 10%, 그리고 성적 데이팅 폭력의 37%를 설명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의 경우 부모간의 폭력 목적보다는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 경험의 영향력이 다소 높았으며, 오히려 심리적 폭력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의 폭력 경험보다는 부모간의 폭력 목적의 영향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모간 폭력 목적,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

변인		데이팅 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전체	
		b	β	b	β	b	β	b	β
부모간 폭력 목적	심한수준	.43	.29***	.28	.17*	.27	.20**	.33	.24***
	중간수준	.03	.03	.02	.02	.15	.16*	.05	.06
	경미한수준	-.02	-.03	-.06	-.07	-.03	-.04	-.03	-.04
부모로부터 의 폭력 경험	심한수준	.44	.31***	.21	.13***	.50	.38***	.36	.28***
	중간수준	-.03	-.04	.006	.01	-.04	-.05	.02	-.02
	경미한수준	-.02	-.02	.09	.11	.002	.00	.02	.03
상수		.54		.54		.30		.91	
Adjusted R ²		.28		.10		.37		.23	
F값		22.85***		6.53***		35.57***		17.97**	

*p<.05 **<.01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경험한 부모간 폭력 목적 및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남자대학생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중소도시 소재 7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본 조사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성장기동안 부모간의 폭력 목적,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의 정도는 낮았다. 그러나 폭력의 수준에 따라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경미한 수준의 부모간의 폭력 목적 및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가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부모간의 폭력 목적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에 대한 지각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간의 폭력 목적에는 중간 수준으로 분류되는 문항들이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에서는 심한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자녀들은 자신이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폭력 수준을 부모간의 폭력 목적 수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민선(1999)은 자녀폭력은 실제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일체의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그 발생빈도가 아내폭력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폭력의 은폐적인 성격은 여타 가족폭력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폭력경험을 갖고 있는 자녀가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린 시절 학습된 폭력성이 다시 나타날 확률이 높게 측정되고 있어 부모의 폭력이 자녀에게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동에 대한 구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어느 수준까지의 폭력이 훈육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어떤 수준의 폭력이 학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그가 속한 사회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수준이건 아동이 부모의 행위를 폭력으로 인지한다면 그 폭력의 결과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본 조사대상자들은 가끔씩 데이팅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리적 폭력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이성교제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데이팅 폭력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많은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이성교제 중 폭력 경험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관계 내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서 폭력이 안정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예정, 1993; 김용미, 1996). 김예정(2001)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성장기 폭력 경험 중 아동기 폭력 경험과 데이팅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아내폭력에 대한 설명에는 아동기 때 부모간 폭력 목격이나 아동기 학대 경험을 통해 폭력이 학습된다는 점이 강조된 반면, 부부관계와 흡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고 미래의 결혼관계에서의 역할을 사회화하는 맥락이 되는 친밀한 미혼 남녀관계에서의 데이팅 폭력 경험이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결혼을 앞둔 커플은 물론이고 결혼 전 데이팅 관계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프로그램이 결혼관계내의 폭력발생을 막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부모간의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들 보다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15배나 높다는 연구결과, 부부간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의 60~70%는 자녀를 학대한다고 한 연구결과(Hughes, 1988; McKibben et. al., 1989; 김정옥 외, 1999, 재인용)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폭력 가정 내에서는 자녀학대와 아내학대가 중복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아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 중 82.3%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녀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조사대상자 중 56.8%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학대를 가하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김정란, 2003).

넷째,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및 데이팅 폭력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결혼 후 부부간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Kalmuss, 1984),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소년들은 성장 후 부부간의 폭력가해자가 될 위험이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지 않은 소년들보다 10배나 높았다고 한 연구(Straus et. al., 1980; 김정란, 1999, 재인용)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 있어 원가족의 폭력이 약물사용, 실업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Reitzels et., al., 2001).

다섯째, 데이팅 폭력에 심한 수준의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nfeldt 등(1998)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파트너를 심리적으로부터 신체적

으로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남자들은 어린시절 아버지가 신체적으로 어머니를 학대하는 장면 노출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의 세대전이 가설을 부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가족폭력의 세대전이와 관련된 결과로 일치하는 경향이였다.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 정재임(1999)은 연구에서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는 학습요인으로서의 폭력적 훈육경험이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도 가장 강력한 직접 영향변인임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학교에서의 의미 있는 타자의 폭력적 훈육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폭력의 학습, 훈련시키는데 유리한 토양이 되고 그것은 다시금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인성과 태도를 확립시킴으로서 폭력적인 대인관계의 체계를 확립해 가는 폭력의 사회화 현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가족폭력과 교사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청소년의 폭력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남자 대학생의 데이팅 폭력과 세대간 전이의 관계를 확인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었지만, 척도 및 표집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정교한 척도 개발과 질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승권, 조애지 (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예정 (2001). 남편의 성장기 폭력 경험,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0호 27-42.
- 김예정 (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 행동.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미 (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1호 187-197.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 (2003).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행동문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8권 3호 67-88.
- 김정옥, 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1호 93-115.
- 김정옥 외 (1999). 의사소통 관점에서의 가족폭력. 한국가족관계학회 1999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현옥 (2001).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이성교제와 교제폭력의 실태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2000). 부모 훈육방법의 세대간 전이.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107-119.
-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제23권 5호 35-50.
- 손정영 (1998).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도시 중산층 부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영화 (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성인아이 성향

김승권, 조애지 (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

- 자녀의 가족에 대한 개입.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1권 1호 127-153.
- 양혜원 (2002). 쉼터 이용 아내구타 노출아동의 문제: 개입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0권 1호 25-50.
- 연합뉴스 (2001). 6월17일.
- 유만수 (2000). 성장기 부부폭력관찰경험, 성 역할 인식,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정도가 아내구타에 대한 왜곡된 신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정폭력관련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장덕희 (2000).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7권 1호 95-123.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8권 2호 229-258.
- 정구철 (2000).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대학생 연애폭력의 예측 기대변인.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임 (1999). 청소년의 폭력성 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준미 (1998).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자녀체벌과의 관계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정 (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3호 73-91.
- 조민선 (1999). 가정폭력의 개념과 기본유형에 관한 연구-유형별 가정폭력의 종합적 고찰.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령 (2001). 아내구타자의 인지행동집단프로그램 참여 1년 후 효과와 폭력관련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9권 1호 99-130.
- 한겨레 (2002). 8월1일
- 홍대식 역 (1991). Sears D. O., Freedman J. L. & Peplau L. A., 사회심리학. 박영사.
- Englander E. K. (1997). *Understanding Violence*. Mahwah, NJ:Lawrence Erlbaum Asso., Pub.
- Heyman R. E. & Sep A. M. S. (2002). *Do child abuse and inteparental violence lead to adulthood family violence?.* J. ϕ *Marriage and Family* 64(4). 864-870.
- Johnson M. P. & Ferraro K. J. (2000). *Research on domestic violence in the 1990s: making distinctions.* J. ϕ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Gelles R. J. (1987). *Family Violence*. 2nd. ed.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84.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ϕ marital aggression.* J. ϕ *Marriage and Family* 46(1). 11-19.
- Reitzel & Wolfe(2001). *Predictors ϕ Relationship Abuse Among Young Men.* J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6. No.2 Feb. 99-115.
- Ronfeldt, Kimerling & Arias(199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the Peparation ϕ Dating Violenc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Feb. 70-78.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 II):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 ϕ *Family Issues*, 17(3), 283-316.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Myoung-Suk Lee

Mi-Sun Lee

Dept. Child & Family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interparental violence, and violence from parents of male college students to examine that child abuse and interparental violence lead to adulthood family violence. Data for research were collected from 376 male students of 7 colleges on Seoul, megalopolis and small towns. The data were analyzed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percentage, mean, SD, Pearson's r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1) There were low level experiences of interparental violence, violence from parents and dating violence of participants. However low risks of interparental violence and violence from parents and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were experienced by participants. (2) There were high correlation between interparental violence and violence from parents. (3) The perceived high risk levels of interparental violence and violence from parents were influenced on the dating violence of male students. So, our results support the general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cycle-of-violence) hypothesis that family-of-origin violence increases the risk for adulthood family violence.

Keywords : Dating Violence, Family Violence, Inteparental Violence, Violence from Parent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